

주일의 말씀

용서받은 그만큼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복음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으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어 발라드렸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과하게 보일 수도, 낭비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참으로 회심하였다는 것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간절한 표현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하신 바리새 시몬은 그녀의 절실했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그 여인은 품위 있는 유대인이 가까이할 수 없는,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죄인일 뿐이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는 흠 없다고 생각하였을 그에게 채무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 이전에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분의 용서에 대한 체험에 많이 달려있다’고 하신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은 그만큼의 큰 사랑을 당신에게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느님을 어느 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나의 구원은 나의 선행이나 업적, 성과 이전에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겠다.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도 맞갖은 사랑을 드리는 자세, 그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죄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용서이다. 그러한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는 나라면 당연히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느님의 용서를 간절히 청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리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도 기쁘게 응답을 드리자. 그분의 사랑에 맞갖은 사랑을 드리자. 대구주보

생명의 말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루카 7,47 참조

2사무 12,7-10,13 갈라 2,16,19-21 루카 7,36-8,3.



미사 보러가자???

교구 사목국

“미사 보러 간다꼬?”

“미사 보러가자!!!”
참 많이 듣고 또 하
는 말이죠? 눈과
눈을 맞대고 (for
eye to eye : 이사
52,8 참조) 하느님
을 뵈옵는다는 것
은 모든 인간의 애타
한 갈망입니다. “우리

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
고 볼 것입니다”(1고린 13,12). 그러나 “미사 보러가
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죠.

실제로 미사 구경하러 온 구경꾼인지 관광객 같은
신자들 참 많잖아요. 성당에는 왔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성경 내용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커녕 성가책도 없이 달랑 맨몸으로 오시는 분, 저 뒤
쪽에 앉아 주보를 외우듯 파고드시는 분, 힐끗 힐끗
시계를 쳐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분, 온갖 분
심잡념으로 마음은 온통 바깥세상을 달리고 계신
분, 구경꾼이거나 관광객이신 분들 참 많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눈, 귀, 입,
손 등 모든 감각(感官)이 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
죠. 미사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귀와 입과 혀와 감정과 마음이 통합적으
로 이루어져야 아름답고 거룩한 미사 봉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부터 한국 신자들은 미사를 성제(聖祭)라
하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하여 미사에
참례(參禮)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참여’란 말을 많이 사용하
여 신자들에게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몸과 마음을
포함한 온전한 인격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
습니다.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중의 환
호, 응답, 시편 교송, 성가와 함께 행동과 동작과 몸
가짐 등을 올바르게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미사 봉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집전 사제와 참석한 신자들 사이의 대화와
응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사 참여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듣고 보고
함께 노래하며 또한 함께 침묵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물 봉헌과 영성체로써 우리는 그리스
도와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일치의 신비를 이루게 됩
니다.

때문에 미사는 집전 사제 혼자 드리고 나머지 신자
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집전 사제와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
여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미사 보러 간다!!!” 는 표현은 옳지 않
습니다. 최소한 “미사 참여하러 간다.” 하거나
아니면 “미사 드리러(봉헌하러) 간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셨죠?

16강 이상을 기원하며...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1주일

입당성가

403 가난한 자입니다

화답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1 반야주소서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모든 날, 주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파견성가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영성의 향기

::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뜨거운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 체험의 기쁨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맞보는 아름다움은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생활 안에서 삶으로 표현되는 결실이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만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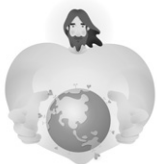
:: 참된 겸손

참된 겸손에 대해 신비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시고 신비에 가득 찬 하나님을 체험할 때 취하는 자세이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재촉하는 아름다운 힘이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허상이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내면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 권 가티리나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훌륭한 벌목공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벌목공이 되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손자가 어느 날 할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기엔 좋은 나무를 고르고 자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 나무의 자연스런 형태에 따라 곧은 것들은 판재용으로 쓰이고, 굽은 나무로는 선박의 늑골을 만들며, 키가 큰 것들은 돛대를 만든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지한 설명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혀 잘린 흔적이 없는 높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희한한 형태로 굽어있는데다 곧은 가지라곤 없고 밑동도 짧고 웅아까지 있어 배를 만드는데 쓸모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는 쓸데가 없겠네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땀을 흘리며 커다란 나무들을 열심히 베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쯤 몹시 지친 손자가 시원한 그늘에서 좀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그 높은 나무 곁으로 가더니, 시원한 나무그늘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까 쓸모없었던 이 높은 나무가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나?” 보여 지는 것이 전부 아니라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일 지라도 다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 훌륭한 벌목공이 되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깊고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박창수 요한 문서 1주기 기일미사

- 일시: 6.14(월) 10:00
- 장소: 성직자 묘지

**낙동강과 못 생명들을 위한
대구 생명 평화 미사**

- 일시: 6.21(월) 19:30
- 장소: 대현성당

**1. 3운동 실천노트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
사목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 사목국 250-3053

★ 모임 · 행사 ★

제4회 가톨릭 국악성가 축제

- 일시: 6.27(일) 16:00~20:00
- 장소: 일산성당(의정부교구)
- 내용: 6개 단체 발표 및 국악성가미사
- 주최: 국악성가연구소(cafe, daum, net/suguncp)
- 문의: 011-9775-5322 / 사무국장 011-612-0061

★ 파정 ★

마리아 영성 파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 일시: 6.16(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 파정

- 일시: 6.18(금) 13:00~20(일)
- 장소: 마리아 파정센터(부산시 남구)
- 강사: 최봉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파정비: 11만원(부산 045-01-0375520, 티없으신)
- 접수: 051-634-0228 / 011-9503-0228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파정

- 소개파정: 8.10(화)~11(수) 1박2일
- 성직 수도자파정: 9.1(수)~8(일) 7박8일
- 문의: 언화리파정집 054-973-4835 / 011-542-4835

★ 성소 모임 ★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6.20(일) 14:00
- 문의: 대구 청원소 010-5517-8833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6.20(일) 14:00, 가톨릭여성교육관
 - 문의: 010-9510-1131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 일시: 6.20(일) 14:00 (매월 셋째 주일)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빈첸시오회 회합실)
 - 문의: 010-6625-0927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6.20(매월 셋째 주일) 14:00, 계산서원
- 문의: 010-3113-6219(snm.or.kr)

★ 모집 · 교육 ★

로고스 말씀가족 창세기(성인반) 연수

-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36차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 주관: 마 신부님
- 초·중·고: 7.25(일)~8.15(일)
- 대학생·일반: 6.27(일)~8.8(일)
- 문의: 그린피스 E&T 02-569-1331

※장기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녀원 필리핀영어연수

- 일정: 7.18(일)~8.28(토) 6주
- 대상: 초·4~중3(35명), 장소: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www.dgyouth.net)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단체출국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 6월 강좌안내

- 에니어그램1단계- 18(금)~19(토)선착순30명
- 스페인어초급- 화요일 11:00
- 영어초급- 토요일 10:00
- 일본어초급- 화요일 10:00, 금요일 19:00
-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실시

- 일시: 7.19(월)~24(토), 교육비: 20만원
- 문의: 653-7755(http://www.dgyouth.net)

가톨릭 선종 장례봉사자 교육(청통수련원)

- 일시: 매월 셋째 토.일(1박2일), 참가비: 5만원
- 천주교전통장례예절/ 선종봉사자임무(40명)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청년 재속프란치스코회원 모집

- 자격: 만35세 이하 가톨릭신자
- 봉헌식: 8.28(토) 14:00
- 장소: 월배 프란치스코수도원 경당
- 문의: 632-9800 / 010-7503-8852

가톨릭요셉발견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계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젊은이 해외 성지순례

- 일시: 7.26(월)~8.6(금)
- 가는곳: 이집트, 이스라엘
- 문의: 윤팔다 수녀 010-5313-0241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 어린이강좌: 미술교실,POP,바이올린,플룻
- 전문과정: 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POP
- 성인강좌: 플루트,바이올린,POP,요가

★ 안내 ★

교구 법원 공시(253-9550)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한미영 (아네스), 서복희 (수산나), 손명진, 이수향(크리스티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꼭 예약해야 됨)

6월 가나강좌(1인당 2만원, 당일접수)

- 일시: 6.20(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6월 14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 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6월 14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젊은이 성령기도회 미사	6월 14일(월) 오후7시	삼덕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6월 15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대구 큰사랑요양병원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 ▶한의원 진료 ▶중풍, 팔기압, 재활치료
- 입원상담 ☎ 951-9119
-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 병원장 김 지 현 의사

한 신 주 택

- 신축 및 주택수리
- 지붕칼라강판 판넬공사
- 지붕 우레탄폼 방수
- 냉동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범어 램브란트 치과

- 원장 김 대 호 (마 지 아)
-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 Tel. 754-2804
- www.ilovelamplant.com
-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성모노인복지센터

-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 요양등급판정 받으신 분 친절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 ☎ 달서구: 053)564-1577
-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이 원 의 료 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 혈압계, 혈당계, 체력계, 안마기, 돗, 부항
- 변 상 받 (노마니) 김 인 숙(아나바)
- 경대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대장·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학문외과
치질·변비·소아변비·범설금·위·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com
신정대우아파트 북원오거리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 전국대표전화 1644-2455
- 고객상담 080-118-1004
-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아가다 노인복지센터

- 아가다복지용구사업소
- 요양보호사 교육생모집(지), 경산전지역 치광운행
- 복지용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 고팔홍(안드레아)·박성자(아가다)
- ☎ 시지점 795-4242, 경산점 815-2700